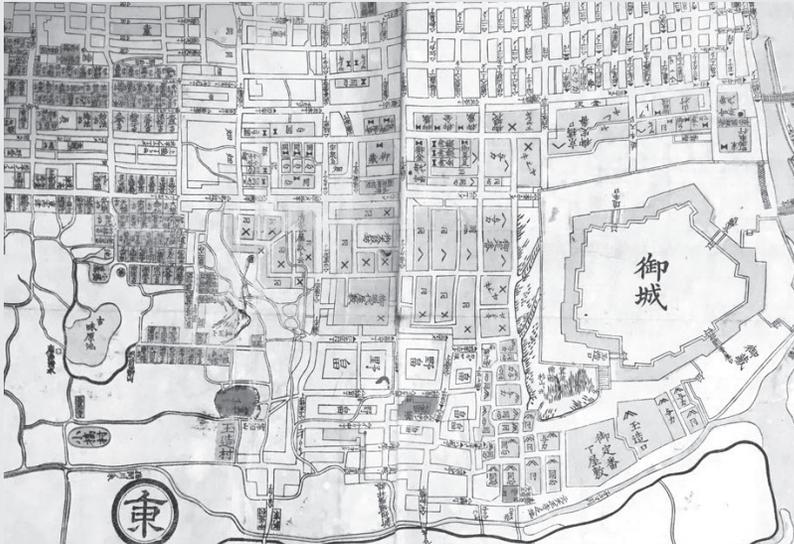


1/ 역풍을 극복하는 법

오사카의 가능성

이노우에 도모카쓰



도쿠가와 정권하 태평성대인 시기, 오사카는 전국 물자의 집산지로서 번영하여 현대의 기초를 쌓았다[弘化新改攝州大阪全圖,(1847), 필자 소장]

이노우에 도모카쓰(井上智勝) 현재 일본 국립사립대학법인 사이타마대학(埼玉大学)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1967년 오사카시에 태어났다. 유소년기를 교토의 시모교(下京)에서, 초·중·고 교까지 도쿄에서 지냈다. 대학은 교토, 대학원은 기타간토(北関東) 지방의 대학원에 다녔고, 1997년에 오사카시립박물관 학예원이 되었다. 2001년 신설된 오사카역사박물관의 근세 부문의 주 담당자로서 전시 제작에 관여하고, 개관 후에는 동관 학예원으로 근무했다. 2011년 사이타마대학 교양학부로 옮겨 일본근세사를 강의하고 있다. 전문은 근세일본과 동아시아의 종교사지만 박물관 시절부터 오사카 연구도 과제로 삼고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1. 머리말

오사카(大阪).¹ 일본 혼슈(本州)의 중심선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하고 세토내해(瀬戸内海)의 동단에 펼쳐진 도시다. 일본 제2의 도시²이자 모도시(母都市, metropolis)로서 긴키(近畿) 지방에 걸친 오사카도시권을 형성한다. 오사카도시권은 도쿄도시권에 다음가는 규모로, 그 수좌도시(首座都市)인 오사카는 서 일본의 중심도시로 불린다.

이러한 오사카는 일본 제1의 도시인 도쿄와 자주 비교되어왔다. 다만, 도쿄 일극집중과 그 이면으로서의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 즉 쇠퇴가 거론된 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그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현저해진 오사카 거점 대기업의 본사 또는 본사 기능의 도쿄로의 이전이다.

이번 『일본비평』 특집에서는 일본의 ‘지방’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었고, 현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현대 일본사회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오사카의 사례를 가지고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기로 한다. 먼저, 대기업의 본사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사카 경제가 지반 침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봄으로써 오사카라는 ‘지방’이 생성된 과정을 더듬어본다. 다

1 오사카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전에는 ‘大阪’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고, 시대에 따라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글에서는 ‘大阪’로 통일한다.

2 근년에는 오사카시보다도 100만 명 정도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시(横浜市)가 도쿄에 다음가는 일본 제2의 도시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코하마시는 대도시이기는 하나 도쿄도시권의 일간을 이루는 데 지나지 않으며 단독으로 오사카도시권을 능가하는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0(헤이세이 22)년의 국세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쿄도구부(東京都区部)와 전체 정령지정도시 중에서 주간(昼間) 인구비율이 130%를 넘는 것은 도쿄도구부와 오사카시뿐으로 요코하마시는 오히려 92%를 밑돌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도쿄와 오사카시와 같은 도시권의 수좌도시(首座都市)가 아니라 도쿄의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오사카시와 요코하마시는 면적이 배로 차이가 난다. 2016년 10월 1일 현재의 인구밀도로 비교하면, 요코하마시가 1km²당 8,575명인 데 비해 오사카시는 1만 2,015명이다. 만약 오사카시가 요코하마시와 같은 면적이라면 인구규모는 요코하마시를 능가할 것이다. 즉, 오사카시에 인접한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나 효고현(兵庫県) 아마가사키시(尼崎市)의 면적을 더해도 요코하마시의 면적에는 100km² 정도 미치지 못하나 두 시의 인구를 더하면 대략 요코하마시의 인구에 필적한다. 오사카시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일본의 제2의 도시다.

음으로, 오사카의 이미지를 검토함으로써 오사카의 사회문화적인 위치를 나타낸다. 또한 경제의 지반 침하라는 상황이 폐색감(閉塞感)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포퓰리즘 정치의 온상이 되어 있음을 언급하여, 현재 오사카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오사카가 도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보기로 하겠다.

서술에 앞서, 오사카에 대해 조금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둔다. 오사카라고 말할 경우, 본래는 일본 근세에 오사카산고(大阪三郷)라고 불린 센바(船場)·시마노우치(島之内)·시모센바[下船場, 니시센바(西船場)라고도 함]·덴마(天満)·호리에(堀江) 등으로 구성된 중심시가지를 가리켰다. 대체로 현재의 오사카시(大阪市) 주오구(中央区)[구 히가시구(旧東区)·미나미구(南区)]·기타구(北区)·니시구(西区)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들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체인 오사카시를 가리키거나 오사카시와 주변 시정촌(市町村)을 포함한 지역을 관장하는 광역자치체인 오사카부(大阪府)를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사카시는 2016년 10월 1일 현재, 인구 270만 5,961명, 면적 225km²로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중 하나다. 오사카부는 2016년 9월 1일 현재, 인구 838만 9,868명, 면적 1,905km²이다.

부제(府制)는 오사카와 교토, 도쿄에만 적용된 지방제도였다. 메이지유신기(明治維新期) 당시까지의 제후(諸侯)에 의한 지배가 폐지되고 정부직할의 현(縣)이 설치되었는데, 근세에 삼도(三都)라고 불린 교토·에도(江戸, 도쿄로 개칭)·오사카에는 현이 설치되지 않고 부제가 시행되었다. 부제는 메이지 정부(明治政府)가 특별히 중시한 지역에 적용한 제도로, 현에 비해 관할하의 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했지만 1898(메이지 31)년 이후 완화되어 다른 현과 동등하게 지방자치가 인정되었다.

2. 오사카의 발전과 경제의 기반 침하

1) 천하의 부역에서 대오사카로

오사카와 도쿄가 도시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은 16세기 말이다.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거둬온 교토에 비하면 둘 다 4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신흥도시였다. 다만 두 도시는 근세에는 교토와 나란히 ‘삼도’라고 해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

오사카도 도쿄도 근세의 도쿠가와(德川) 정권하에서 발전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일찍이 에도라고 불린 도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간토(關東) 지방에 봉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1590(덴쇼 18)년에 이곳에 거점을 정한 이후로 발전했다. 이에야스가 입부(入府)했을 무렵의 에도는 시골티 나는 한촌(寒村)이었다. 한편, 오사카는 고대·중세의 수도에 가까웠고, 소규모지만 항만도시의 기능이 존재하거나 시텐노지(四天王寺)와 스미요시샤(住吉社) 등의 국가승경사찰이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도시의 양상을 띤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곳에 본거를 정한 이후였다. 다만 그 번영은 오래 가지 못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도요토미가 멸망당하면서 오사카의 거리도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도쿠가와 정권은 에도에 기반을 두면서도 오사카를 중시했다.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³

도요토미를 무너뜨린 도쿠가와가(德川家)가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자, 에도가 일본의 정치 중심도시로 정비되어간다. 하지만 에도는 황량한 간토지방의 해변부에 돌연히 나타난 신흥도시였다. 정치 중심의 도시를 구축하기에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물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양질의 물자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과 그를 소유한 기술자가 에도 주변에는 많지 않았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보유

3 오사카의 역사에 대해서는 『新修 大阪市史』 1~10, 1996~1998, 大阪市. 산업에 특화된 통사서술로는 武部善人, 『大阪産業史』, 有斐閣, 1982가 있다.

하고 있던 것은 고대 이래 수도였던 교토와 그 주변이었다. 정치의 중심에 걸맞는 도시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기술과 제품을 에도에 대량으로 유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쿠가와 정권 초기 에도에는 물자 공급에 불가결한 상업을 담당하는 인재도 많지 않았다. 이러한 면에서도 도쿠가와 정권은 교토 주변의 상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교토와 그 주변, 대체로 현재의 긴키 지방은 천황, 즉 ‘주상’(主上)이 있는 방향이라는 의미로 ‘가미가타’(上方)라고 불렸다. 가미가타에서 에도로 보내지는 물자는 ‘구다리모노’(下り物)라 하여 고급품으로서 애용되었다. 그렇지만 내륙에 위치한 교토는 대량의 물자를 반출입할 수 있는 큰 항만을 갖추지 못했다. 그 때문에, 교토와 강을 통해 이어져 있고 물살이 잔잔한 세도내해에 면한 항구를 갖출 수 있는 오사카를 도쿠가와 정권은 주목했다.

도쿠가와 정권은 오사카에 거주하는 이들의 토지세를 면제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해, 교토와 후시미(伏見)·사카이(堺) 등 상업도시의 상인들을 오사카로 모았다. 스미토모가(住友家)와 같이 교토의 유력상인 중에는 오사카로 이주하는 자도 많았다. 도쿠가와 정권은 오사카를 성장시킴으로써 에도의 발전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거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리하여 오사카는 도쿠가와 정권이 집정하는 근세 일본에서 중앙시장의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다.

도쿠가와 정권은 세제(稅制)의 중심에 쌀을 두었다. 도쿠가와 정권과 그로부터 부여받은 토지를 통치하는 제후들은 토지의 생산고를 쌀로 환산해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했다. 쌀 가격은 오사카의 도지마(堂島)에 있는 쌀시장에서 결정되었다. 이렇듯 근세 일본은 정치의 중심은 에도에, 경제의 중심은 오사카에 둔 두 개의 중심을 가진 사회였다.

17세기 중엽 일본은 해안선을 일주하는 항로를 정비했는데, 오사카는 그 발착점의 중심이 되었다. 출선 1천 척, 입선 1천 척이라 일컬어진 오사카의 항구 변화는 일본에서 달리 비길 곳 없는 광경을 연출했다. “천하의 재화 7부는 나니와(浪華, 오사카의 옛 명칭)에 있고, 나니와의 재화 7부는 배 안에 있

다”(天下ノ貨, 七分ハ浪華ニアリ, 浪華ノ貨, 七分ハ舟中ニアリ)⁴고 하여, 오사카의 항구에는 전국의 부 70%가 집중되었다고 일컬어졌다. 모든 물자가 풍부하게 모이는 오사카를 ‘천하의 부엌’이라 칭했다.

제후의 대부분은 영지와 에도 외에 오사카에도 저택을 마련해, 영내에서 생산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공업제품을 환금했다. 또한, 자금 조달을 위해 부유한 오사카 상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다. 오사카 상인의 자금력 없이 도쿠가와 정권과 제후에 의한 지배는 성립되지 않았다.

중앙시장인 오사카에는 다양한 상인이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 각 업종을 대표하는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오사카의 중심지인 센바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부호들이 오사카에 집단으로 거주했던 것이다.

근세의 오사카에서는 거대한 재산에 뒷받침된 질 높은 문화가 전개되었다. 자택에 일본의 전통문화의 한 장르인 노(能) 무대를 설치하고 이에모토(家元, 최고 권위의 전승자)를 교토에서 불러들여 노를 익히는 대상인(大商人)과, 자택에 사설 천문대를 설치하고 직인(職人)을 전담시켜 관측 용구를 제작하는 전당포 주인도 있었다.⁵ 꽃꽂이와 선차도(煎茶道)의 이에모토도 오사카에서 배출되었다. 년교조루리(人形浄瑠璃)[분라쿠(文楽)]와 가부키, 스모와 같은 예능도 이 지역에서 발전했다.

에도가 가미가타로부터 자립해가는 것은 18세기 말이 되어서였다. 가미가타에서 인재와 기술이 동점(東漸)하여 에도의 배후지에 직물과 양조 등의 높은 기술을 가진 직인집단이 형성되어갔다. 그에 의해 에도는 가미가타로부터 자립할 수 있었다.

오사카의 발전과 함께 교토의 지위는 하락했다. 천황과 그를 둘러싼 전통적인 정치집단인 조정(朝廷)은 존재했지만 정치의 실권은 에도에 있는 도쿠가와가가 장악하고 있었고, 천황·조정은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실권 없는 존재였다. 화려한 도시로 불렸던 교토는 ‘화려한 시골’이라고 야

4 広瀬旭荘, 「九桂草堂隨筆」, 『日本儒林叢書』 2.

5 井上智勝, 「旦那衆文化の伝統」, 『共同研究成果報告書』 第8号, 大阪歴史博物館, 2014.

유 받았다.⁶ 가미가타에 있어서 교토는 이른바 격(格)이 다른 중심이었지만, 실력 면에서는 오사카에 훨씬 못 미쳤다.

교토를 누르고 가미가타를 대표하는 대도시가 된 오사카였지만, 막말 유신기의 동란으로 일시적으로 활황을 잃었다. 제후들에게 자금을 융통했던 오사카의 부유한 금융업자는 막대한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특권을 잃었다. 도산하는 상인이 속출했다. 메이지유신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신정부에서 발언권이 컸던 가고시마번(鹿兒島藩) 출신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는 교토에서 오사카로 천도할 것을 주장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도쿄를 수도로 정하는 것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지향한 메이지유신 정부에 있어 몇 가지 점에서 유효했기 때문이다.⁷

오사카는 메이지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고시마번 출신의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등에 의해 주식거래소와 상법회의소, 상업강습소 등 근대적인 상업기반이 정비된 이래 다시 도시로서의 활력을 되찾아간다. 또한 고다이가 유치에 진력한 조폐료(造幣寮)는 근대적인 국립 화폐제조공장으로, 당시 최선예의 기술이 여기에 결집되었다. 이후 오사카는 근대 공업도시로서 일본의 산업·경제를 견인해가게 된다.

청일전쟁 전후부터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이 활발해지면서 오사카는 일본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다. 1925년에는 인구·공업생산액·면적 등 모든 지표에서 도쿄를 앞질렀다. 오사카는 명실상부 일본 제1의 도시가 되었고 세계에서도 제6위의 대도시가 되었다. 이 시대의 오사카는 ‘대오사카’

6 鎌田道隆, 『京花の田舎』, 柳原書店, 1977.

7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국가를 지향한 유신정부는 당초 교토를 거점으로 삼고 있었다. 천황과 조정대신과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방의 민중과는 1000년간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천황을 신비라는 천으로 덮어 권위화하고 그 위신을 가지고 일본을 통솔할 구상을 한 유신정부에게 그와 같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반대로 천황에 익숙하지 않은 에도와 도호쿠(東北) 지방 사람들에게는 천황의 존재를 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신정부를 실질적으로 수립한 것은 서국제후(西國諸侯)를 섬기는 하급무사와 조정 안에서도 지위가 높지 않은 하급 조정대신이었다. 그들은 인습에 얽매인 교토에서는 대담한 쇄신정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토로부터의 천도를 실행했던 것이다. 다만 이때 교토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도쿄로 천도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의 수도는 이론상 현재에도 교토다. 오사카는 교토에 너무 가까웠다.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 校倉書房, 1997 참조.

라고 불렀다. 1921(다이쇼 10)년 제정된 오사카시가(大阪市歌)가 “동양 제일의 상공지(제정 당초는 ‘상업지’)”라고 노래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沖繩)와 한반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찾아 오사카로 와서 정착했다.

공업의 발전은 관련 산업을 발흥시켰다. 방적을 위한 기계산업과 섬유 소재와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조선 등의 중공업도 발달했다. 또한 일명 간사이오면(関西五棉)이라 불린 섬유를 주로 취급하는 상사들이 발달했다. 전후(戰後) 이러한 상사는 섬유거래에서 형성한 해외와의 커넥션과 인재를 활용하여 섬유 이외의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종합상사가 되어갔다.

2)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도쿄 일극집중

근대 이후 오사카는 도쿄와 나란히 일본의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20세기 초 이후 일본의 산업·경제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한신(阪神, 오사카-고베 간)공업지대가 견인했다.⁸ 당시 한신공업지대의 생산액이 일본 전국 생산액의 30%를 점하여, 도쿄를 중심으로 한 게이힌(京浜, 도쿄-요코하마 간)공업지대의 15%의 두 배에 달했다.

그러나 전후(戰後) 게이힌공업지대의 존재감이 높아져 한신공업지대의 생산액을 웃돌게 되면서 한동안 양자의 공업생산액이 길항했다. 오사카와 도쿄라는 길항하는 두 개의 산업·경제 중심을 가진 이 시기의 일본의 경제구조를 ‘이안렌즈구조’(二眼レフ構造)라 한다. 고도성장기(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일본의 공업화는 한층 더 진행된다. 게이힌·한신 양 공업지역에의 인구집중과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양 공업지대에 공장 신설을 제한하자, 공장은 도쿄·오사카 간의 태평양연안과 산요(山陽) 지방의 세토내해 연안에 많이 건설되어 도쿄에서 후쿠오카(福岡)까지 띠 모양의 집적을 이루었다. 신설된 신칸센과 고속도로에 의해 각 공업지대와 지역이 연결

8 八田達夫·田淵隆俊, 「東京一極集中の諸要因と対策」, 八田達夫 編, 『東京一極集中の経済分析』, 日本経済新聞社, 1994.

되어 ‘도카이도 메가로폴리스’ ‘태평양벨트지대’를 형성했다. 도쿄와 지방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가 탈공업화하는 가운데 도쿄 일극집중이 진행되었다. 공업에 견인된 고도경제성장은 공해 문제의 심각화, 국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초래했다. 그로써 값싼 임금으로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 가능한 해외로 공장이전이 진행되었다. 그 대신 일본의 산업 주역은 정보화산업 등의 지식중시형 산업으로 이행되어갔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도쿄 일극집중,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의 주 요인이었다.

오사카가 오로지 공업도시로서 형성되어온 반면 도쿄에는 차세대 산업이 싹트고 있었다. 사카모토 지로(坂本二郎)는 그 원인을 ‘공장과 중졸의 거리’인 오사카와 ‘오피스와 대졸의 거리’인 도쿄의 차이, 바꾸어 말하면 육체노동의 거리 오사카와 두뇌노동의 거리 도쿄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⁹ 사카모토에 따르면, 전국 대졸자의 절반은 도쿄권에 있고 오사카에는 10퍼센트도 채 안 되는 대학생밖에 없다고 한다. 확실히 후술하는 것처럼 근세에 부유층이 거주했던 오사카는 공장노동자의 거리로 변모했고, 오사카의 대학은 도쿄에 비해 그 수가 대단히 적었다. 그렇기는 하나 교토에도 도쿄만큼은 아니지만 대학이 집적해 있어서 오사카의 기업은 교토와 고베(神戸) 등에서 인재를 채용했다. 따라서 사카모토의 이러한 견해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오사카가 도쿄에 비해 산업구조 전환에서 뒤떨어진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이상으로 도쿄 일극집중,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의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중앙집권국가 일본의 강력한 중앙정부의 존재였다. 정부는 산업·경제를 통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허가 전망이나 정부 구상 등 정부나 관료와 단단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이 기업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9 坂本二郎, 『東京本社・大阪現場論』, 『別冊 中央公論 経営問題』, 昭和41年秋期特大号(5-3), 1966.

임원은 도쿄에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미 고도경제성장기에는 많은 오사카 기업의 임원이 도쿄에 대기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62(쇼와 37)년 오사카와 도쿄에는 제조업 공장 수, 공업제품 출하액, 상점 연간 판매액 등에서는 그다지 격차가 크지 않으나, 최고경영자 수에서는 도쿄가 오사카보다 7배 이상 많았다.¹⁰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관민 유착을 초래했다. 1976(쇼와 51)년에 표면화된 전후 일본 최대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라 일컬어지는 록히드 사건은 그 유명한 예다. 간사이 지방의 대표적인 5개의 섬유상사 중 한 상사가 사건에 관여했던 것인데, 이 회사는 1966(쇼와 41)년 도쿄 지사를 본사로 격상시켜 오사카 본사와 함께 2본사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중앙집권국가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와 정계의 움직임에 파악해 시류를 타는 것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다. 고도성장기에 현저해진, 오사카에 본거를 둔 회사가 도쿄에도 본사를 설치하고 심지어 오사카를 지사로 강등하는 경향은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도쿄에 중앙정부가 존재한 전전(戰前) 다이쇼기(大正期)에 오사카는 도쿄를 제치고 '동양 제일의 상공지'였다. 그렇다면 단순히 도쿄에 중앙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도쿄 일극집중이 진행되었다는 시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전과 전후는 산업·경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 정도가 현저히 달랐다. 전전의 일본기업은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없었고 영업의 자유가 존중되었다. 방적산업 등 정부로부터 자립한 업계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산업·경제의 존재방식은 중일전쟁이 격화되고 영미개전을 앞둔 전시체제하에서 사라지고, 국가관료에 의한 산업·경제에 대한 개입·통제가 전시를 이유로 강력하게 추진되어갔던 것이다.¹¹

10 坂本二郎, 「東京本社・大阪現場論」.

11 野口悠紀雄, 『1940年体制(増補版)』, 東洋經濟新報社, 2010(초판 1995).

전시체제를 향한 모든 개혁은 1940년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총력전을 위한 준비로서 은행의 통합과 정보통제를 위한 신문의 통합 등이 이루어졌고, 오사카·도쿄에 병립해 있던 신문의 편집 기능은 도쿄로 집약되었다. 지방자치도 후퇴했다. 기민한 판단이 요구되는 전시체제하에서 의회의 논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은 시간이 걸려 의사결정 방법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국정 차원에서는 다이세이요쿠산카이(大政翼賛會, 국민동원체제의 핵심조직-울긴이)가 성립되었고, 지방제도 차원에서도 이른바 정부 소재지인 제도도쿄(帝都東京)의 지방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도쿄부(東京府)·도쿄시(東京市)의 폐지와 도쿄도(東京都)의 설치가 그것이다. 그때까지는 도쿄시를 포함한 시군(市郡)을 관장하는 도쿄도 아래에서 도쿄시가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실시해왔다. 이러한 부(府)와 시(市)의 이중행정은 평상시에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로 기능한다. 하지만, 전시하에서 제국의 수도 도쿄의 신속한 의사결정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도쿄부를 대신해 정부의 통제를 좀 더 강하게 받는 도쿄도가 설치되고, 도쿄의 지방자치를 담당해온 도쿄시는 폐지되어 도쿄도 직할의 구(區)로 분해되었다. 전시하에서 제국의 수도 도쿄에 관한 의사결정을 앞당겨 정부의 의향을 쉽게 관철시키는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¹²

1945년 8월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여 전시(戰時)는 종언을 맞았다. 하지만 전시체제하에 구축된 관료에 의한 산업·경제에 대한 개입·통제가 폐지되고 기업활동이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되찾는 일은 없었다. 정부에 의한 산업·경제 통제는 전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는 전시체제하인 1942년 제정되어 1997년 개정되기까지 운용되었던 ‘일본은행법’ 제1조에 “제2차 대전이라는 국가총력전을 위해 도입된 체제가 여전히 경제의 중핵을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¹³ 그 조문이란, “일본은행

12 전후에도 도쿄도제(東京都制)는 도쿄부·도쿄시제로 복구되지 않고, 구(區)의 권한을 시(市) 정도로 강화하는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3 野口悠紀雄, 『1940年体制(増補版)』.

은 국가경제총력의 적절한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에 따라 통화의 조절, 금융의 조절 및 신용제도의 유지 육성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日本銀行ハ国家經濟總力ノ適切ナル發揮ヲ図ル為国家ノ政策ニ即シ通貨ノ調節, 金融ノ調整及信用制度ノ保持育成ニ任ズルヲ以テ目的トス)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하에서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경제대국 일본은 담당자인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경제총력’의 통제상에서 성립되었던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 기업활동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국가관료나 정치가와와의 ‘조절’ 혹은 ‘조정’이 불가결해진다. 이러한 전시부터 계승된 정부와 관료에 의한 경제의 통제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사카가 아니라 도쿄에 본사·본점·임원을 이전할 필요에 내몰렸던 것이다.

3. 오사카의 이미지

1) 문화의 위협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를 상징하는 대기업의 도쿄로의 진출이 이어지자, 오사카부는 2003(헤이세이 15)년 오사카에 본사를 둔 자본금 100억 엔 이상의 기업에 대해 본사로서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다.¹⁴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在)오사카 기업이 오사카에 본사를 두는 이유와 기업이 오사카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해명한 점이다.

많은 경우 오사카에 기업을 두는 이유로, 시장·판매처와 생산 거점과의 근접성을 들고 있다. 앞으로 오사카에 기대하는 것으로는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 세제 우대, 오사카의 이미지 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세제 우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재(在)오사카 기업이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과

14 『大阪における企業の本社機能: 企業の本社機能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報告書』,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 2004.

오사카의 이미지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오사카의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는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에서 각 기업이 생각하는 오사카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재오사카 기업이 오사카의 이미지 상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사카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오사카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오사카에 투영된 일반적인 이미지를 확인해보자.

오사카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로 ‘상업도시’가 있다. 그것은 활기차고 불임성이 좋다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설명되는 한편, 돈에 인색하다, 구두쇠, 악착스럽다 등 배금주의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상놈(下司)의 거리’로 표현하고,¹⁵ 심지어는 나중에 총리대신이 된 인물이 ‘가래침단지’(痰壺)로 쓰기도 했다.¹⁶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대중성’이다. 그것은 ‘다코야키·코미디·타이거즈’라는 단어로 상징된다. 다코야키로 대표되는 간편하고 값싼 먹거리, 친근감 있는 개그맨, 열광적인 응원으로 알려진 프로야구 구단이다. 또는 호피무늬의 화려한 옷을 걸치고 품위 없이 오사카 사투리를 쓰는 중년여성으로 상징되는 오사카상(大阪像)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오사카의 대중성은 고급스러움의 정반대에 있다. 물론 이것들은 오사카라는 도시의 한 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반복 확산되다 보면 오사카 전체가 그러한 이미지로 전 국민에게 인식되고 만다.

또는 ‘코미디와 야쿠자’를 오사카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일본

15 梅棹忠夫, 『日本三都論』, 1987, 角川書店.

16 일본의 총리대신을 역임한 모리 요시로(森喜朗)는 1988년에 오사카 사람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빠져서 공공심을 잃어버렸다는 식의 인식을 보이면서 오사카를 ‘가래침단지’라고 평했다. 2000년에는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의 TV나 영화에서 반사회적 조직의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는 난폭한 오사카 사투리인 경우가 많다. 물론, 반사회적 조직의 활동도 오사카를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은 도쿄를 비롯해 일본의 어느 도시에나 있는 것이다. 오사카 사투리에는 센바 사투리로 대표되는 우아하고 온화한 말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이나 반사회조직의 말투라는 오사카 사투리의 이미지와 괴리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가 그것을 다루는 경우가 없어 결국 쇠퇴해버렸다.

배금주의·대중성·반사회조직이라는 오사카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여기서 논할 여유는 없다. 다만 지금은 그것들 대부분이 도쿄의 매스미디어, 특히 TV 방송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만을 지적해 두겠다. 그것은 사이드(E. W. Said)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과 같은 시선에 의해 관찰되어 있다.

전후 개시된 일본의 TV 방송은 ‘키국’(Key局)을 중심으로 편성된 전국방송망에 의해 발신된다. 따라서 ‘키국’에 해당하는 도쿄의 방송국의 힘은 매

우 크다. 도쿄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인 롯폰기(六本木)와 오다이바(お台場), 하라주쿠(原宿)와 자유가오카(自由が丘), 시로가네(白金)와 다이칸야마(代官山) 등의 지명이나 그곳의 상점 정보를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듯 방송망이 미치는 전국 산촌이나 해변 마을에까지 구석구석 발신되는 것이다.

오사카의 방송국은 ‘준(準)키국’으로서 도쿄의 방송국 ‘키국’에 다음가는 정보발신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사카발 전국 프로그램의 제작·발신은 일극집중 과정에서 체감되어왔다. 현재는 재오사카 방송국도 전국 프로그램 대부분을 도쿄에서 제작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간의 출연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오사카를 거점으로 전국구의 인기를 누리게 된 연예인도 대부분 도쿄로 이전한다. 이것 또한 도쿄 일극집중의 일면이다.

기즈가와 게이(木津川計)는 본래 다양한 오사카의 면모 중에서 배금주의·대중성·반사회조직 등 어두운 면만 포착되어 확산됨으로써 이미지 하강을 초래하는 상황을 ‘문화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¹⁷ 이러한 ‘문화의 위협’을 불식하는 것이 오사카의 이미지 상승에 불가결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이 필요해진다. 재오사카 기업이 오사카에 기대하는 것으로 정보발신 기능의 충실과 이미지 상승을 든 배경에는 그러한 현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장과 종졸의 거리

도쿄의 시선이 투영된 것이라고 해도 이러한 품격이 결여된 부정적인 오사카상이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시대를 거슬러올라가 생각해보면, 근세 오사카는 일본을 대표하는 부자의 집주지(集住地)였다. 거기에는 거대한 재산에 뒷받침된 문화와 예술, 학술에 걸친 풍부하고 고급스런 문화가 숨쉬고 있었다. 현재 일본의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문물을 포함한 귀중한 미술품·문화재를 오사카에 사는 부유층이 적잖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근대에 오사카가 공업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주거환경이 악화된 오사카

17 木津川計, 『含羞都市へ』, 神戸新聞出版センター, 1986.

에 점포를 둔 채 교외 주택지로 거주를 옮겨버린다. 철도의 발달이 그러한 경향을 선동했다. 그때까지 직장과 주거가 같은 장소에 있던 방식이 분리로 전환되어갔다. 부유층이 옮겨간 곳은 아시야(芦屋)·미카게(御影)·스미요시(住吉) 등 세토내해가 내려다보이는 한신(阪神) 간의 풍광지 등이었다. 그들을 대신해 오사카 주민의 중심이 된 것은 영세한 공장의 경영자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근대 오사카는 부자의 집주지에서 상공업의 노동현장으로 변모해갔다.

앞서 사카모토 지로가 고도성장기의 오사카를 ‘공장과 중졸의 거리’, 도쿄를 ‘오피스와 대졸의 거리’라고 평한 것을 소개했다. 하지만, 근대에는 도쿄에서도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현저했던 것은 현재의 스미다구(墨田区)와 고토구(江東区) 등의 ‘시타마치’(下町)로, 그곳에는 많은 공장노동자들이 생활했다. 사카모토는 “도쿄도에서도 스미다·고토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은 ‘공장과 중졸의 거리’”라고 서술했다. 도쿄에서 부유층은 ‘야마노테’(山の手)라고 불리는 고지대에 거주했다. 그곳은 행정구획으로는 도쿄 시내에 속했다. 역내(域内)에 야마노테를 보유한 도쿄는 부자와 대중성이라는 두 이미지를 갖추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사카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오사카 시내에도 테즈카야마(帝塚山) 등 부유층의 집주지가 있었다. 하지만 고지대에서 세토내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한신 간에 형성된 고급주택지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오사카에 회사가 있는 경영자 대부분이 오사카시내·오사카부내가 아니라 니시노미야(西宮)·아시야·고베 등의 효고현(兵庫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도쿄의 야마노테에 필적하는 이미지는 아시야나 고베시 동부 등 한신 간으로 집약되어갔다.¹⁸ 고베는 항구도시로서의 개방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유층의 생활을 동경하는 ‘멋스러운’ 이미지가 더해갔다.

오사카는 행정구획의 벽에 의해 이들 한신 간의 부유층의 거주지와 분리되었다. 그 때문에 도쿄처럼 야마노테와 시타마치 둘을 내부에 보유하지

18 阪神間モダニズム展実行委員会 編, 『阪神間モダニズム』, 淡交社, 1997.

로 눈길을 돌려보아도 전전에는 법률·경제·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하나에 불과했다. 전후에는 오사카제국대학과 오사카상과대학이 각각 오사카대학과 오사카시립대학으로 개명하여 종합대학이 되었고, 시내에 신제대학(新制大学)²⁰도 증가했다. 그러나 도쿄와 교토에 비해 늦은 감은 부정할 수 없다. 오사카의 대학은 도쿄는 물론이고 교토에 비해서도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부유층을 잃고 학술연구·고등교육의 중심이 되지 못한 오사카는 고급문화 불모지로 알려져간다. 한편 도쿄는 역내에 부유층을 유지하면서 도쿄제국대학을 비롯한 6개 대학 등 다수의 학술연구·고등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해갔다.

교토에 있는 대학을 나와 오사카에서 일하고 고베에 사는 것이 교토, 오사카, 고베 사람들의 이상(理想)적 인생이라고 일컬어진다. 오사카는 배우는 곳도 사는 곳도 아니다. 그저 일하고 돈을 버는 장소다. 한편 도쿄는 어떠한가. 모든 것을 갖춘 도쿄에서는 도쿄에서 배우고, 일하고, 사는 것이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성제(聖帝)와 다이코(太閤)

그래도 오사카는 일하는 장소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부유층 즉 ‘양가의 자녀’가 아니어도 기회를 잡아 실력으로 출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꿈을 부여하고 때로는 이루어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오사카상은 역사상의 인물에게도 투영되어간다.

필자가 오사카의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2007년 내관자 및 박물관 자원 봉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오사카의 역사상 인물로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결과는 39명 중 27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 오

20 신제대학(新制大学)이란, 1947년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의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학제 개혁에 의해 학교교육법이 시행되어 그 이전의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과 대학령(大學令) 등에 의한 대학은 구제대학(舊制大學)이라 불리게 되었다.(옮긴이)

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郎), 후쿠자와 유키치, 고다이 도모아쓰 등이 각 1명씩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었다.²¹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전전(戰前)기와는 매우 다르다. 전전기의 오사카에서는 닌토쿠천황(仁德天皇)이 그 위치에 있었다. 닌토쿠천황은 제16대 천황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 그 사적은 물론이고 실재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다만,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닌토쿠천황을 난바(難波), 즉 오사카에 다카쓰노미야(高津宮)라고 불리는 수도를 정하고 곤궁한 백성을 위해 세금을 면제한 성군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봄, 높은 곳에서 춘락을 내려다보던 천황은 백성들의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 것에 가슴 아파해 3년간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고 자신도 비가 새는 궁전에서 소박한 음식으로 견뎌으로써 다시 백성들의 아궁이에서 연기가 나게 되었다²²고 한다. 근세 이래 닌토쿠천황은 자애심이 넘치고 오사카 발전의 기초를 쌓은 ‘성제’(聖帝)로서 이미지화되어 있었다. 1921년 제정된 오사카시가(大阪市歌)는 “다카쓰노미야의 옛부터 대대로 영광을 거둬해 백성의 아궁이서 피는 연기”(高津の宮の昔より、代々の榮を重ねきて、民の竈に立つ煙)로 시작된다. 또한 시가의 3절에는 앞서 언급한 “동양 제일의 상공지”라는 구절도 나온다.

원래 이 가사는 오사카시의 시 청사 건설 시 전국 공모한 2,398편 가운데 선정된 가가와(香川)현 미토요(三豊)중학교장인 호리사와 지카야스(堀沢周安)의 작품이다. 호리사와는 오와리(尾張) 이누야마(犬山)[현재의 아이치(愛知)현 이누야마시(犬山市)] 출신으로, 도쿄에서 수학 후 나가노(長野)현과 가가와현 등에서 교편을 잡은 인물이기 때문에 오사카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가사는 오사카 이외 지역 인물이 오사카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를 대변한 것이다. 오사카에 인연이 없는 타 현의 인물이 오사카를 이미지화할 때에

21 井上智勝, 「聖帝と煤煙: 大阪における歴史意識の転換についての覚書」, 『大阪歴史博物館研究紀要』第6号, 2007.

22 『日本書紀』卷11, 『日本書紀』2, 岩波書店, 1994, 234~236쪽.

닌토쿠천황의 다카쓰노미야를 떠올리고 “동양 제일의 상공지”라고 읊은 것은 당시의 오사카의 이미지를 아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공업도시화한 근대 오사카는 매연에 의한 공해로 시달리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진출한 부유층을 대신해 오사카에 유입된 공장노동자들을 비롯, “동양 제일의 상공지”에서 운명을 개척하려고 버르는 사람들이 오사카에 모여들었다. 비천한 출신에서 출세해 천하를 호령하기에 이른 이미지로 인식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한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력’과 ‘근성’으로 진흙투성이가 되어 기어오른다. 고도경제성장기는 이러한 모델이 사람들을 고무시켰다. 집단취직으로 고향을 떠난 앳된 소년들이 그러한 출세담을 가슴에 품고 일에 힘쓸 수 있었다.

또한 히데요시는 황금을 좋아한 화려한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품모도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여 결코 ‘멋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다. 대중성과 촌스러움을 체현하는 인물로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오사카 이미지에는 최적의 인물이다.

그러나 탈공업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그러한 촌스러운 삶은 지지받지 못하게 되었다. 공업에서 정보화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행함과 동시에 사회는 중후장대(重厚長大)에서 경박단소(輕薄短小)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²³ 촌스러운 ‘노력’과 ‘근성’을 대신해 ‘멋스러움’과 ‘스마트’한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버블기(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기)에는 그와 같은 가치관이 극에 달했다. ‘다이코’(太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후장대 시대의 모범 인물이었다.

23 중후장대(重厚長大)란 중화학공업 등의 산업을 의미하는 말로, 산업의 특질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다. 이들 산업이 무겁고[重]·두껍고[厚]·길고[長]·큰[大] 제품을 취급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반대말로 경박단소(輕薄短小)가 있는데 가볍고[輕]·얇고[薄]·짧고[短]·작음[小]을 가리켜 경량화, 소형화단 산업을 의미한다.(윤킨이)

4) 이미지 상상을 저해하는 것

대중성과 촌스러움, 난폭하고 상스러운 이미지였던 오사카를 1980년대 ‘문화의 거리로’ 변모시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기즈가와 게이였다. 기즈가와와 오사카가 ‘문화의 위협’을 극복하고 문화의 향기가 감도는 ‘문화의 거리로’ ‘수줍은 도시로’(含羞都市)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²⁴

1997년 필자가 오사카시에서 공무원이 됐을 때의 전체연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의 강사가 오사카의 나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오사카를 무대로 한 트렌디 드라마를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한다. 트렌디 드라마란 버블기에 유행한 ‘멋스럽고’ ‘스마트’한 연애드라마다. 그 무대는 도쿄여서 당시의 젊은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드라마를 보고 도쿄에 동경을 품었다. 대중적이고 촌스러운 이미지가 덧칠해진 오사카는 트렌디 드라마의 무대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강사는 오사카를 무대로 이와 같은 ‘멋스럽고’ ‘스마트’한 드라마를 제작하여 이것을 전국에 발신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다만, ‘문화의 거리’나 ‘수줍은 도시’로의 변모가 성공하여 ‘멋스럽고’ ‘스마트’한 오사카상을 전하는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문화의 위협’을 불식할 수 없다. 재오사카의 ‘준키국’은 일정한 전국방송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V드라마를 제작해 발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시청자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시청률이 낮은 드라마는 금방 종영되고 이후 비슷한 드라마는 제작되기 어려워진다.

수신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란 어렵다. ‘멋스러움’ ‘스마트’와는 정반대의 이미지가 확산되는 오사카가 ‘멋스럽고’ ‘스마트’함을 주장한들 수신자가 납득할 수 있을까. 도쿄의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중성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입혀진 오사카가 그 이미지를 불식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24 木津川計, 『文化の街へ 大阪・二つのアプローチ』, 大月書店, 1981; 木津川計, 『含羞都市へ』, 神戸新聞出版センター, 1986.

4. 역풍 속에서

1) 전시(戰時)의 재래(再來)

오사카에서 도쿄로의 본사 이전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현저해져 전후(戰後)를 통틀어 계속되었는데, 그래도 한동안은 오사카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전국의 15% 정도를 유지했다. 사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자본금 100억 엔 이상 기업은 2000년까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 경제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반 침하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글로벌화가 시작된 2000년대 오사카에서 자본금 100억 엔 이상 대기업의 전국 비율은 고도경제성장 말에 비해 10%나 저하됐다(표 1 참조).²⁵

글로벌 경제에 대한 대응이란 예를 들면 거대화하는 해외의 대자본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이었다. 그 때문에 도쿄와 오사카가 일치단결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서는 새로운 전시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전시체제의 도입은

〈표 1〉 도쿄·오사카의 자본금 100억 엔 이상 기업 수와 전국 점유 비율

연도	전국	도쿄	비율	오사카	비율
1970(쇼와 45)	166	101	60.8	31	18.7
1975(쇼와 50)	234	142	60.7	40	17.1
1980(쇼와 55)	306	178	58.2	49	16.0
1985(쇼와 60)	437	259	59.3	61	14.0
1990(헤이세이 2)	790	448	56.7	105	13.3
1995(헤이세이 7)	1171	650	55.5	169	14.4
2000(헤이세이 12)	1346	749	55.6	181	13.4
2005(헤이세이 17)	1280	735	57.4	145	11.3
2010(헤이세이 22)	1303	799	61.3	116	8.9
2014(헤이세이 26)	1096	667	60.9	94	8.6

출처: 국세청 통계연보서(제96회 쇼와45년 판, 제101회 쇼와50년 판, 제106회 쇼와55년 판, 제111회 쇼와60년 판, 제116회 헤이세이2년 판, 제121회 헤이세이7년 판, 제126회 헤이세이12년 판, 제131회 헤이세이17년 판, 제136회 헤이세이22년 판, 제140회 헤이세이26년 판) 도도부현별 보통법인수.

2) 폐색감과 포퓰리즘 정치

TV에도 출연하는 유명 변호사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오사카부민·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오사카지사·오사카시장을 역임하고, 그를 중심으로 설립된 ‘오사카유신회’(おおさか維新の会)라는 정당이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것은 그러한 오사카부민·시민의 르상티망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는 오사카부라는 광역자치체와 그 중핵을 이루어 부 전역에 걸친 대사업을 실시하는 오사카시에 의한 ‘이중행정의 낭비’를 호소하며, 부와 시의 통합에 의한 재정 및 기타 합리화를 지향하는 ‘오사카도 구상’(大阪都構想)을 내세웠다. 전시하의 도쿄도와 마찬가지로 부와 시를 일체화하고 시를 몇 개의 특별구로 구분하는 구상이다. 하시모토가 오사카시장이던 때에 그러한 구상의 실현을 목표로, 2015년 오사카시민에 대해 구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에 앞서 오사카시는 판단의 참고가 되도록 『특별구설치협정서에 대하여』(설명 팸플릿)²⁶라는 책자를 오사카 시내의 각 가정에 배포했다. 그 첫머리에 하시모토는 「‘특별구설치협정서’에 대해」라는 글을 실어 ‘도(都)구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열변하고 있다. 그 일부를 아래에 게재한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도쿄에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비하면 현재 도쿄의 발전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철도 네트워크는 더욱 충실해져, JR야마노테선(山手線) 내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철망과 사철(私鉄)이 서로 연결되어 수도권 어디에 가더라도 편리합니다. 또한, 신주쿠와 하네다공항을 20분 만에 연결하는 ‘수도고속중앙환상선’이 계획된 지 50년 만에 전선 개통. 나아가 올림픽 개최를 고려하여 수도권 전체를 전망한 다이내믹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사카는 어떨까요. 오사카에는 50년 앞의 미래를 내다본, 오사카 전체의 발전을 느끼게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사가 되어 놀란 것은 ‘오사카 시

26 大阪市, 「特別区設置協定書について(説明パンフレット)」, 2015.

내는 오사카시장의 관할, 오사카 지역 외는 오사카부지사의 관할'이라는 관공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오사카의 발전을 생각하는데 오사카 시내만을 보고 있으면 너무 좁고, 오사카 지역 외만을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나 시내, 시외라는 '구역'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사카 전체의 다이나믹한 발전을 실현하는 대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사카도시권 전체의 대도시 전략의 사령탑으로서 오사카부청을 새로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사카도 구상'의 실현을 지향하는 하시모토가 호소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시내, 시외라는 '구역'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사카 전체의 다이나믹한 발전을 실현하는 대도시 전략"의 "사령탑으로서 오사카부청을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자체는 찬반 양론이 있다고 해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현재의 도쿄의 발전"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발언은 도쿄와 오사카가 맞수관계에 있다는 의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전제 위에, 발전하는 맞수의 모습을 여봐란 듯이 과시해 선망과 르상티망을 끌어냄으로써 어쨌든 뭔가 현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으로 오사카 시민을 유도하고 있다. '오사카도'(大阪都)라는 말 자체에도 도쿄를 의식시켜 그에 대한 대항 의식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다음으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 의한 이중행정의 해소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도쿄의 발전과 오사카의 50년 앞을 내다본 계획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서 읽어낼 수 없다. 하시모토의 의도를 존중하자면, 이중행정을 해소하면 50년 뒤의 오사카 전체가 다이나믹하게 발전하여 현저히 발전한 도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중행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전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도쿄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전시체제 때부터 끌어온 중앙집권국가 일본이라는 틀과 정보화·글로벌화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시모토가 비판하는 오사카부·오사카시의 이중행정 하에서도 “50년 앞의 미래를 내다본” “발전을 느끼게 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시모토는 도쿄의 “50년 앞의 미래를 내다본” “발전을 느끼게 하는 계획”의 상징으로서 ‘올림픽’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오사카시도 2008년 올림픽 개최지에 입후보하여 시 전체가 유치활동에 주력했다. 이때 일본 정부의 지원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담백했다. 그 결과 오사카는 겨우 6표를 획득, 56표를 획득한 베이징에서의 개최가 결정됐다. 또한 오사카시는 올림픽 유치에 병행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도 힘을 쏟아부었다. 이는 성공을 거두어 현재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하시모토의 시야에는 들어 있지 않다.

하시모토는 도쿄의 발전에 눈을 돌리게 하여 오사카부민·시민의 선망과 르상티망을 선동한다. 그로써 이중행정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정’(都政)을 지향한다. 물론 ‘오사카도 구상’이 실현된다고 해도 법 개정을 거치지 않는 한 ‘오사카부’는 존속하고 오사카시는 특별구로 분할될 뿐이다. 도쿄도제(東京都制)가 전시에 만들어진 지방자치의 이념에 역행하는 체제인 것은 이미 서술했다. ‘오사카도 구상’의 실현으로 얻는 것은 전시에 유효한 논의를 중시하지 않는 톱다운식의 의사결정이다. 그것은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 구상은 오사카시민의 투표 결과 찬성 69만 4,844표, 반대 70만 5,585표, 득표율 49.6% 대 50.4%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저성장시대에 진입해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폐색감과 정체감을 공유하고 있다. 하시모토의 인기와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가 그러한 폐색감과 정체감이 특히 증폭되기 쉬운 위치에 있음을 부각시켰다. 그것은 맞수 도쿄의 현저한 발전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의식에 입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저성장시대에 발전만을 추구하는 발상은 조만간 파탄할 것이다. 저성장시대에는 그야말로 저성장시대의 모델이 제시·추구되어야 한다.

〈표 2〉 도쿄·오사카 및 요코하마시·고베시 인구비교표

연도	도쿄시· 도쿄부	오사카시	도쿄부·도	오사카부	요코하마시	고베시
1920(다이쇼 9)	2,173,201	1,252,983	3,699,428	2,587,847	422,938	608,644
1925(다이쇼 14)	1,995,567	2,114,804	4,485,144	3,059,502	405,888	644,212
1930(쇼와 5)	2,070,913	2,453,573	5,408,678	3,540,017	620,306	787,616
1935(쇼와 10)	5,875,667	2,989,874	6,369,919	4,297,174	704,290	912,179
1940(쇼와 15)	6,778,804	3,252,340	7,354,971	4,792,966	620,306	787,616
1950(쇼와 25)	5,385,071	1,956,136	6,277,500	3,857,047	951,189	765,435
1955(쇼와30)	6,969,104	2,547,316	8,037,084	4,618,308	1,143,687	979,305
1960(쇼와 35)	8,310,027	3,011,563	9,683,802	5,504,746	1,375,710	1,113,977
1970(쇼와 45)	8,840,942	2,980,487	11,408,071	7,620,480	2,230,264	1,288,937
1975(쇼와 50)	8,646,520	2,778,987	11,673,554	8,278,925	2,621,771	1,360,605
1980(쇼와 55)	8,351,993	2,848,180	11,618,281	8,473,446	2,773,649	1,367,390
1985(쇼와 60)	8,223,199	2,636,249	11,829,363	8,668,095	2,953,667	1,410,834
1990(헤이세이 2)	8,091,701	2,623,801	11,855,563	8,734,516	3,199,032	1,477,410
2000(헤이세이 12)	7,921,476	2,598,774	12,064,101	8,805,081	3,397,895	1,493,398
2010(헤이세이 22)	8,502,527	2,665,314	13,159,388	8,865,245	3,672,789	1,544,200
2015(헤이세이 27)	9,102,598	2,691,742	13,634,685	8,839,469	3,711,450	1,537,860

출처 : 국세조사보고서(다이쇼9년~쇼와55년)/쇼와60년 국세조사 제1차 기본집계 도도부현편/헤이세이22년 국세조사 제1차 기본집계 도도부현편/헤이세이12년 국세조사 제1차 기본집계/헤이세이22년 국세조사 인구 등 기본집계/헤이세이27년 국세조사 도도부현·구시정촌별 주요통계표 (e-stat(<http://www.e-stat.go.jp/SG1/estat/eStatTopPortal.do>))에서 열람.

감소했는데, 1955년에 회복되었다. 다만, 도쿄의 인구가 일시적인 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후 계속 증가해 현재는 900만 명을 넘는 데 비해, 오사카시의 인구는 1965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1980(쇼와 55)년 이후는 대략 260만 명대에서 현재까지 보합 상태다. 그동안 해변부의 매립은 있었어도 그와 함께 대규모 시역 확장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도시가 발전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도쿄의 면적이 오사카시 면적의 세 배 이상 되는 사실에서 오사카시의 인구를 세 배로 하면 도쿄와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성립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배후지까지를 포함해 검토하면 도쿄권의 우세가 명확하다. 시(市)의 수준이 아니라 부(府)의 수준에서 보면, 도쿄부(도쿄도)는 대략 2,100km² 이상, 오사카부는 대략 1,800km² 이상으로 면적은 큰 격차가 없다. 하지만 인구 차는 항상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인구 차만으로 오사카시의 인구를 능가하는 수다.

근린도시로 눈길을 돌리면, 요코하마시도 고베시도 1950년에는 400km² 정도의 시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요코하마시의 면적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1960년 고베시의 시역은 증가하여 500km²를 넘는다. 그럼에도 고베시의 인구는 그 후 40만 명이 증가하는 데 지나지 않아, 동년 인구에서 세 배 이상 신장한 요코하마시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1960(쇼와 35)년에 20만 명밖에 차이가 없었던 요코하마시와 고베시의 인구는 10년 후에는 100만 명의 차가 되었다. 고베시가 험준한 롯코산지(六甲山地)를 시역에 포함하는 점을 제외해도 이 인구 차는 크다.

이와 같이 오사카시가 도쿄시를 누르고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되었을 때조차 도쿄부의 인구는 오사카부의 인구를 상회했고, 그 후 한 번도 오사카가 도쿄를 능가한 적이 없다. 삼도(三都) 중에서도 삼부(三府) 중에서도 교토를 압도하는 가미가타의 대표도시로서 간토 지방의 대표도시 에도에 대치하는 것이 오사카의 숙명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동격이 아니라 최대한 높게 잡아도 4 대 6이라는 역학관계에서의 맞수에 지나지 않았다. 양자 사이에 존재한 것은 단지 수위도시(首位都市)와 차위도시(次位都市)라는 관계였다.

이와 같이 오사카와 도쿄를 비교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틀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일본이라는 기축에서 자유로워져 세계로 눈을 돌리면,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와 쇠퇴라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오사카는 오히려, 도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쿄와 독립된 상권(商圏)을 가지며 세계와 겨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최근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도

시와 통근자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교외도시를 포함하여 도시권이 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근거해 2015년의 ‘도시권 인구’를 산출한 기사다. 그에 따르면, 도쿄도시권 인구가 3,510만 명인 데 비해 오사카도시권 인구는 1,219만 명으로 부진하다. 하지만 그 수치는 제3위의 나고야도시권 인구의 554만 명과 큰 차이가 난다. 이 기사의 집필자는 “여러 가지로 지반 침하 소문이 나도는 오사카지만, 도시권 인구로는 나고야에 두 배 이상의 큰 차를 내는 등 도쿄에 대한 라이벌 정신이 호기가 아니라는 것을 과시한 모양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오사카·고베·교토를 합한 도시권 인구가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의 인구를 상회하는²⁷ 것도 전하고 있다.

인구뿐만 아니다. 2013(헤이세이 25)년의 현내 총생산(GDP)은 도쿄도의 93조 엔에 비하면 오사카부는 37조 엔으로 부진하지만, 이 금액은 덴마크, 싱가포르를 상회하고 오사카 단독으로도 뉴질랜드를 상회하는 규모다.²⁸ 도쿄에 대기업을 빼앗기고 현내 총생산이 감퇴해도 여전히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오사카는 아직 단독으로도 충분히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인 것이다.

5. 결론

도쿄 일극집중과 그 이면으로서의 오사카 경제의 지반 침하는 전시 중 정부에 의한 산업·경제 통제방식이 전후에도 계승된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전전기의 자유주의적 산업·경제 정책하에서 도쿄를 능가하는 번영을 구가한 오사카는 고도경제성장기까지는 그 기세를 지속했으나,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방식에 의해 점차 그 지위가 낮아졌다. 중후장대(重厚長大)

27 「ニッポンご当地まるごとランキング」, 『週刊ダイヤモンド』 104-13, 다이아몬드社, 2016, 50~53쪽.

28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홈페이지, <http://o-bic.net/j/atractive/>(검색일: 2016. 11. 13).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검토와 실천이 요청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다듬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로지 도쿄에 대한 대처라는 내향적 의식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의 대도시로서 세계와 대치해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박윤정(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일본사상 전공)이 번역했다.